

“다윗 같은 정치인 달라 기도하기 전, 국민들부터 깨워야”

제3차 ‘리바이벌코리아 미스바 광장 기도회’ 열려

제3차 ‘리바이벌코리아 미스바 광장 기도회’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진행됐다.

대한민국의 위기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 하자는 취지의 이 기도회는 오는 6월 3일 열리는 대통령 선거 직전 주간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기도회를 주도하고 있는 이태희 목사(그안 예진리교회 담임)가 처음 메시지를 전했다. 이 목사는 ‘맑은 정부의 근원은 교회다(삼하 1:1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정부의 근원은 교회다. 정치의 새로운 물줄기

인 무관심과 정치적인 무지로부터 벗어 날 수 있도록 그들을 계몽시켜야 한다. 정치적 계몽운동,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국에, 복음전도와 함께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성경적 보수주의 운동을 통한 국민 사상 개조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이 사명을 리바이벌 코리아가 감당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한국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기도한다”며 “맑은 정부의 근원은 바로 맑은 교회다. 한국교회가 바로 서면 나라도 바로 선다. 한국교회로부터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물줄기가 흘러 나오게 될 것을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이날 두 번째 설교자로 나선 황은

혜 목사(그레이스선교교회)는 ‘너희는 세상의 빛’(마 5:14-16)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황 목사는 기도회에 모인 참석자들을 향해 “여러분은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의 자녀다. 지금 이 나라가 어둠 가운데 있지만 선한 역사를 이를 수 있는 빛의 자녀”라고 했다.

황 목사는 “빛이 없으면 모든 생명은 그 생명을 잃게 된다.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의 빛”이라며 “지금은 이 나라가 빛으로 가느냐 어둠으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있다. 따라서 빛의 자녀들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어둠으로 가면 망한다고, 밝은 빛으로 나아오라고 빛을 비추어야 한다”고 했다.

황 목사는 “빛이 된다는 건 구별된다



제3차 ‘리바이벌코리아 미스바 광장 기도회’ 참석자들이 기도하고 있다. ©리바이벌코리아

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성한 자 면 자유를 빼앗기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 존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증 다고 경고하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고 했 거야 한다”며 “이 나라가 어둠으로 가 다. ▶관련 설교 12면 김진영 기자

기독교, 북미·유럽에선 ‘세속화·쇠퇴’ 라틴·아프리카에선 ‘성장’

세계 85개 국 9만1천 명 대상 ‘글로벌 성경 인식 조사’

기독교 주류 사회였던 북미와 유럽에 서 기독교가 세속화하거나 소퇴하는 반면, 라틴 아메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기독교와 성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영국성서공회와 협력해 글로벌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Gallup)을 통해 전 세계 85개 국 9만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글로벌 성경 인식 조사(World Bible Attitude Survey)’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고 대한성서공회가 최근 전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세계 주요 지역에서의 기독교 상황은 아래와 같다. 그룹1-사헬 지역: 무슬림 주류 사회. 경



‘글로벌 성경 인식 조사’에서 발표한 유사성을 공유하는 7개의 그룹 ©대한성서공회

제적 요인으로 성경 접근과 참여가 어려운 상황. 열악한 지원을 가진 소수의 기독교인.

그룹2-동유럽: 소퇴하는 기독교 주류 사회. 일상 가운데 종교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세속화되어가는 과정.

그룹3-북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무슬림 주류 사회. 정치적 요인으로 성경 접근과 참여가 제한적. 소수의 기독교인.

그룹4-라틴 아메리카: 기독교 주류 사회. 세속화되어거나 성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

그룹5-북미, 서유럽, 호주권: 세속화된 사회. 기독교 인구 감소화. 성경에 대한 관심도가 낮음.

그룹6-아시아: 다종교 사회. 성경에 대한 인식 부족. 소수의 기독교인.

그룹7-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기독교 주류 사회. 종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성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 기독교가 주류였던 북미와 유럽에서 기독교는 세속화거나 소퇴하고 있다.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성경에 대한 관심도도 낮다.

공화 측은 “조사를 통해 확인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성경에 대한 무관심과 인식 부족이었다. 조사 대상자 중 64%는 성경에 관한 관심이 없었으며, 10명 중 7명은 성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비기독교인 중 64%는 성경이 자신과 참여도가 높은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

을 적시에 전하고자 하는 전략적 사역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한국교회의 기도와 후원을 바탕으로, 말씀을 기다리는 세계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사역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 성경에 대한 높은 관심과 활용도가 확인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대해 대한성서공회는 성경 보급 사역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성서 출판 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하며 성경 제작과 미자립성서공회에 대한 기증을 통해 성서 사업을 지원해, 2024년 한 해 동안 보급한 총 420만여 부의 해외 성서 중 53.9%를 아프리카에, 14.8%를 라틴 아메리카에 전달했다고 한다. 또한 같은 해 기증한 총 84만여 부 중 절반 이상인 42만여 부를 아프리카에 기증했다.

공회 측은 “이는 성경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은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

을 기다리는 세계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사역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한국교회의 기도와 후원을 바탕으로, 말씀을 기다리는 세계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사역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이 재판은 여러 가지로 문제 많았다. 먼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년 내에 3심까지 마쳐야 하는데, 1심이 나오기까지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다. 1심을 맡은 판사는 1년 4개월을 짜증 끌다가 갑자기 사표를 내서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넘어갔다. 그리고 2심은 4개월 만에 재판 결과를 가져왔지만 1심에서 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을 ‘무죄’로 만들었다. 이때 판결한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있었다. 법원에서 법의 양심에 따라 재판하라고 국가가 세웠는데 정치 도구화가 된 것”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지금 우리 국민은 혼란 속에서 대선에서의 투표를 강요받고 있다. 생각이 든다”며 “국민들에게 공범(共犯)의식을 심어주는 후보자는 이미 자격이 없다고 본다. 본인에게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라도 밟동이 되든지, 공당 지도자들이 국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조치를 취해야 맞지 않는가? 국민은 정말 제대로 된 대통령을 선택하고 싶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대법의 이재명 판결, 사법부 썩지 않았음 보여줘”

교회언론회 “국민은 제대로 된 대통령 선택하고 싶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 이하 언론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폐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에 대한 논평을 최근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 재판은 여러 가지로 문제 많았다. 먼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년 내에 3심까지 마쳐야 하는데, 1심이 나오기까지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다. 1심을 맡은 판사는 1년 4개월을 짜증 끌다가 갑자기 사표를 내서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넘어갔다. 그리고 2심은 4개월 만에 재판 결과를 가져왔지만 1심에서 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을 ‘무죄’로 만들었다. 이때 판결한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있었다. 법원에서 법의 양심에 따라 재판하라고 국가가 세웠는데 정치 도구화가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처럼 국가와 국민에게 혼란과 절망감을 주어도 되는 것인가? 대통령 선거는 친목회 회장이나 동네 반장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 누구나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존경할 만한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언론회는 “지금 우리 국민은 혼란 속에서 대선에서의 투표를 강요받고 있다. 생각이 든다”며 “국민들에게 공범(共犯)의식을 심어주는 후보자는 이미 자격이 없다고 본다. 본인에게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라도 밟동이 되든지, 공당 지도자들이 국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조치를 취해야 맞지 않는가? 국민은 정말 제대로 된 대통령을 선택하고 싶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한덕수 부인 ‘4대째 기독교 집안’, “무속과 무관” ▶ 3면

인니 바탕족이 세운 예수 조각상 가치와 의미 ▶ 7면

美 CCM 그룹 Sanctus Real, “예수님이 희망” ▶ 23면

용산 처음이자 마지막 주택수 제외 실투자금 1억원대 투룸 오피스텔 분양



비교 불가! 오피스텔 위치 끝판왕

아시아 실리콘밸리 착공 / 용산 철도 지하화 개발
현대차 모빌리티 연구소 착공 / 국제업무지구 착공 예정
대한민국 핵심지역! / 대체불가 위치 오피스텔

압도적 스펙 그 어떤 곳과도 다릅니다

프리미엄 발렛 / IoT 시스템 스마트 미라 / 25cm 더 높은 층고와 개방감 / 프라이빗 피트니스

이런 분들에게 추천 드립니다

일체 수익 극대화 원하는 분 / 개발호재로 시세차익을 원하는 분
주택수 부담없이 추가 투자 원하는 분

자신있게 말씀 드립니다

용산 마지막 1억원대 투룸 투자 / 한시적 제공되는 주택수 제외
망설이는 순간 용산에서 다신 기회 없습니다

분양 문의 02-757-3000

홍보관 주소: 용산구 서빙고로 17, 1층(센트럴파크타워)